“호국영령 극락왕생 발원합니다”

통도사, 제3회 호국영령 법요식 및 위령재

6월 15일 설법전 및 경내 일원서
제31육군병원 분원 ‘국가현충시설’
숭고한 희생들 깊이 새기는 계기

이도경 부산지사장 yongjang88@naver.com



영축총림 통도사가 6월 15일 경내 설법전에서 제3회 호국영령 법요식 및 위령재를 봉행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6월 15일 경내 설법전에서 ‘제3회 호국영령 법요식 및 위령재’를 봉행했다.

통도사는 6·25 한국전쟁 당시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으로 헌신해 국가현충시설로 지정받았다. 통도사는 이를 기념하며 위령재를 봉행하고 한국전쟁 중 희생한 수많은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매년 마련하고 있다.

행사는 명종 5타를 시작으로 △개회 △삼귀의 △국민의례 △애국가제창 △묵념 △반야심경 △경과보고 △헌향 △헌다 △헌화 △봉행사 △추모사 △법어 △추모노래 △추모공연 △사홍서원 순으로 이어졌다.

행사에는 통도사 수좌 명신 스님, 주지 현덕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 불교신문 사장 오심 스님을 비롯해 나동연 양산시장, 윤영석 국회의원, 이종희 양산시의회 의장, 이순희 울산보훈지청장과 유족 및 보훈관계자와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통도사는 한국전쟁 당시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이 설치되어 수많은 부상 장병들을 치료하는 시설로 사용되었으며 매일 수십명에 이르는 전사자들의 장례를 치르기도 했다”며 “오늘 의미 있는 법석에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들을 추모한다면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고 지금도 어디선가 국가를 지키고 있을 이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봉행사를 전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오늘 우리는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자 한다”면서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기억하고 추모해야 하며, 국가와 국민들도 천년 넘는 역사 동안 국가의 큰 국란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았던 호국불교의 정신 또한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추모의 메시지를 밝혔다.

통도사 수좌 명신 스님은 “6.25전쟁 당시 통도사는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으로 부상당한 상이군인들을 치료하는 야전병원이었으며 그때 통도사를 지키던 대중들에게는 부상병을 돌보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오늘을 살고있는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 되었다”며 “국가를 지키기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부처님 전에 발원한다”며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통도사는 호국영령 법요식에 이어 대웅전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호국영령위령재 의식을 봉행했으며, 이어 삼성반월교 옆에 설치한 특설무대에서 추모음악회를 개최하며 행사를 회향했다.

한편, 통도사에서는 그간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육군병원 분원의 존재를 밝히기 위해 2020년 1월 17일 국방부와 육군본부, 국군의무사령부에 공문 발송을 시작으로 같은 해 3월 증언과 자료를 취합한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로써 같은 해 12월 17일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로부터 ‘분원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받았다. 2021년에는 국방부로부터 해당 사실을 확인받았으며, 10월 심의 과정을 거쳐 11월 1일 보훈처로부터 현충시설 지정 통보(지정서 별첨)를 받았다.

“영환 대종사시여, 다시 꽃피는 소식 전해주소서”

범어사 6월 17일 총림장 엄수


금정총림 범어사 원로 일여당 영환 대종사의 영결식이 6월 17일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엄수됐다.

후학 양성에 앞장서 온 금정총림 범어사 원로 일여당 영환 대종사의 영결식이 6월 17일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엄수됐다.

총림장으로 엄수된 이날 영결식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 주지 정오 스님, 율주 수불 스님, 문도대표 화랑 스님,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대종사 등 산중 어른스님들과 범어사 본·말사 주지스님, 신도 등이 참석했다.

영결식은 명종 5타를 시작으로 개식, 삼귀의, 헌향 및 헌다, 영결법요 의식, 내빈 헌화 등이 이어졌으며 행장소개, 추도입정, 법어, 추도사, 문도대표 인사말이 이어졌다.

방장 정여 대종사는 법어에서 “언제나 자상하시어 올곧은 소리로 후학을 바르게 이끌어 주신 대종사님의 크나큰 자비심에 마음 깊이 감사한다”며 “속환 사바하시어 어리석은 중생을 제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지 정오 스님은 “젊은 시절에는 수행과 행정을 겸비한 능력으로 본사의 기틀을 바로 세워주셨고 이후 다함이 없는 애정으로 늘 저희 후학들의 사표가 되어주셨다”며 “한 송이 꽃이 피고 졌다. 향기는 남아 천지를 진동하오나, 향기마저 사라지기 전에 속환사바하시어 다시 꽃피는 소식을 전해주시옵서”라고 추모했다.

상좌대표 화랑 스님은 “안거 중에도 저희 은사스님의 영결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스님들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수행정진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영결식 후 만장 행렬을 따라 스님의 법구는 연화대로 이운됐다. 연화대에 안치 후 거화 의식이 진행됐으며 스님은 지수화풍이 되어 금정산 녹음 속으로 흩어졌다.

영환 대종사는 1948년 경남 합천군에서 태어나 1964년 17세에 동산 대종사를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강원에서 공부를 마친 후 1969년 22세에 석암 대율사를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범어사에서 별좌 도감 원주 등 여러 소임을 두루 거치며 사중 산림을 지켜나가는데 능력을 발휘했다. 스님은 1983~84년 고경사 주지를, 1985~86년 동명불원 주지를 역임했으며, 금정중 이사를 맡아 도반들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인재불사에도 앞장섰다. 1987~2001년에는 금정중 이사장으로 소임을 다했으며, 1994~98년 조계종 제11대 중앙종회의원, 1997~2008년 창원 성흥사 주지, 2001년 범어사 부주지 등을 역임했다. 스님은 6월 15일 오전 8시경 세수 77세, 법랍 61세로 창원 성흥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일여당 영환 대종사의 49재는 6월 21일 초재를 시작으로 28일 2재, 7월 5일 3재, 12일 4재는 창원 성흥사에서 봉행된다. 19일 5재와 26일 6재는 김해 흥부암에서 엄수되며 막재는 8월 2일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태고종 세종충남교구 지방종회의원회의

6월 18일 공주 광명사서

태고종 세종충남교구종무원(원장 원철 스님)은 6월 18일 공주 광명사에서 종회의원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이날은 종무회의에서는 세종충남교구종무위원으로 △세종지역 보길 스님 △천안·아산지역 능엄 스님 △공주·아산·예산지역 대성 스님 △홍성·태안·서산·당진지역 지원 스님 △청양·보령·서천지역 천명 스님의 임명을 동의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삼태리마애불 보존 위해 휴양림 정비 필요”

천안 태학사, 마애불 관리 점검
엄기표 문화유산전문위원 조사


삼태리마애불을 점검하고 기념촬영을 한 이정문 의원, 법연 스님, 엄기표 교수(사진 왼쪽부터).

천안 태학사(주지 법연 스님)는 6월 14일 천안시 동남구 소재 삼태리마애불의 보존 및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태학사는 60년 전 삼태리마애불이 보물 지정 당시 명예관리사찰로 지정돼 꾸준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점검에는 천안 태학사 주지 법연 스님, 이정문 국회의원(천안 병), 엄기표 단국대 교수(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전문위원)이 참여했다.

마애불의 상태를 살핀 엄기표 교수는 “주위 조성된 휴양림이 차단한 햇빛과 그로 인한 습기가 형성돼 이끼가 형성되고 탈락되는 것이 확인했다”며 “주변의 휴양림을 정비해 마애불에 그늘을 줄이는 등 마애불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주변 경관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연 스님은 “마애불은 오래전엔 태학산 밑에서도 잘 보여 근동의 주민들이 예경하는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높게 자란 나무들로 인하여 친견하기 힘들어졌다”면서 “태학산 휴양림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더불어 불교문화유산인 삼태리 마애불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사회복지법인 혜원, 제27회 혜원백일장

6월 16일 혜원정사 일원서



사회복지법인 혜원(대표이사 원허 스님)은 6월 15일 혜원정사 경내에서 ‘제27회 혜원백일장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

사회복지법인 혜원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예 창작 재능을 발휘하고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매년 백일장을 개최하고 있다.

대표이사 원허 스님은 “평소 내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보고 진솔하게 잘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진여원, 제26회 진여호국영령위령재

6월 14일, 화명동 현충공원서



진여원(원장 남보타월)은 6월 14일 화명동 신도시 현충공원 내 호국추모탑에서 제26회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봉행했다.〈사진〉

조계종 전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호국영령 당신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후대에 길이 길이 보전되기를 저희들은 노력할 것”이라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추도법문을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생명나눔 부산, 제16회 명상걷기대회 성료

6월 16일 부산시민공원 일원서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스님, 이하 부산생명나눔)가 6월 16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제16회 희망세상만들기 생명나눔 명상걷기대회’를 개최했다.〈사진〉

부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행사를 통해 부산생명나눔은 장기기증의 의미와 생명 존중을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알려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섰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 충북포교사단 분야별 연수회

6월 16일 능인교육관서



조계종 포교사단 충북지역단(단장 신학균)은 6월 16일 법주사 능인교육관에서 분야별 연수회를 개최했다.〈사진〉

입재식에는 법주사 사리각 장산 스님, 포교국장 보적 스님을 비롯해 신학균 충북지역단장과 120여 회원들이 동참했다. 이날 연수회에서는 장산 스님의 법문과 하용수 부단장의 리플레이 특강, 충북지역단 군포교1팀과 남부지역봉사1팀 등이 각각 활동사례를 발표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부산불교연합회, ‘부산연등회 평가회’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가 6월 19일 더스타뷔페 시그너스홀에서 ‘2568부산연등회 실무자 평가회’를 개최했다.〈사진〉

평가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석산 스님을 비롯해 사무부총장 정수 스님, 동암 스님 등 부산불교연합회 집행부 스님들과 각 신행단체 및 사찰 실무자가 동참했다.

사무총장 석산 스님은 “앞으로 부산불교가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해가야 할지 함께 생각하고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진주 약사정사, 지역 어르신 도시락 나눔

무료 도시락 200여 개 전달



진주 약사정사(주지 진여 스님)가 6월 16일 진주 상봉동 일원에서 지역 어르신 위한 무료 도시락 나눔을 전개했다.〈사진〉

사회복지법인 원명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진여 스님을 비롯한 신도들은 무료 도시락 200여 개를 마련해 전달했다. 약사정사 진여 스님은 “어르신들의 노후가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다”며 “마음에 따라 극락도 만들어진다. 부처님의 법을 따라 마음의 평안을 찾고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